

# 이통사 CEO, 미디어·모빌리티·자율차에서 답을 찾다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인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19'에 국내 이통통신사 수장이 찾았다. 5세대(5G) 이통통신 상용화로 자율주행차에 5G 적용이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통신사들의 제휴·협력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5G에 실을 콘텐츠를 찾기 위한 수장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9일 이통통신 업계에 따르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회장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9'에 참석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SK그룹과 공동 전시 부스를 꾸리고 국내 이통통신사 중 유일하게 CES에 참가하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의 CES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정호 사장은 8일(현지시간) CES 2019에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함께 부스를 둘러보고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전문기업 하만과 개발한 미래형 커넥티드카 조종석 '디지털 콕핏'을 체험하기도 했다.

박 사장은 "5G는 전 산업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미디어·모빌리티 분야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SK텔레콤은 장벽 없는 협력을 통해 5G와 미디어·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박 사장은 5G 시대 핵심 자율주행 기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SK그룹과 공동부스 마련 "5G시대 미디어부터 비롯"

로 자사의 '단일광자 라이더'를 우선으로 꼽았다. 단일광자 라이더는 지난해 2월 인수한 스위스 기업 IDQ의 양자 센싱 기술을 적용한 첫 결과물이다. 단일 광자 라이더는 300m 이상의 장거리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어 향후 자율주행 시대에 전방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는 '눈' 기능을 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모빌리티뿐 아니라 미디어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각사

사와 손잡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통합을 추진하며 5G 길러 콘텐츠 마련을 위한 새해 첫 발을 내딛었다.

박정호 사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CES 2019에서는 미국 최대 규모의 지상파 방송사인 싱클레어 방송 그룹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며 미국의 방송 솔루션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토종 미디어 기술이 미국 시청자들의 인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SK텔레콤은 조직개편을 통해 미디어를 4대 사업부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 미디어를 5G 시대의 핵심 콘텐츠로 꼽고 있는 셈이다.

이날 박정호 사장은 CES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5G 시대의 뚜렷한 변화는 '미디어'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하현회 LG유플러스 회장 완성차 부스 방문해 체험 등 자율차 미래발전 방향 모색

다"며 "4G 때 PC가 폰 안에 들어왔다면, 5G 때에는 TV가 폰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인공지능(AI)의 융합에서 이통통신사 역할 찾기에 몰두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지난해 말 한양대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에 5G를 적용한 시나리오를 실증하고 올해 선별된 테스트베드에서 LG유플러스의 5G 환경에 기반한 자율주행차 운행과 다양한 정밀지도의 정확성 등의 공동 연구

추진을 진행하며 자율주행차 협력에 힘을 쏟고 있다.

이날 하현회 부회장은 그룹사인 LG전자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혼다 등 완성차 업체의 부스를 방문해 자율주행차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인사이트를 구했다. 하 부회장은 자율주행에서 모빌리티(Mobility)와의 연계, 5G 기반의 AR·VR 등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함께 자율주행차 탑승객 편의성 향상 혁신 기술 및 커넥티드카 추진 현황 등을 살폈다.

하 부회장은 "5G시대의 자동차는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자동차의 기능이 가장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난다"며 "조조지연 5G 통신이 스마트시티의 인카(In-Car) 라이프스타일, 실시간 AI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황창규 KT 회장은 CES 2019 대신, 내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9'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5G가 상용화 되면 향후 첨단 모빌리티와 미디어·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CES에서 자율주행·모빌리티 기술이 총집합하는 만큼 이통통신사로는 신기술을 확인하고 협력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코웨이, 일상 속 혁신케어 제시

스마트 비데로 북미 본격 진출

코웨이가 비데로 북미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8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19' 참가를 통해서다.

9일 코웨이에서 따르면 이번 CES에서 코웨이는 비데 위생과 사용자 건강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건강한 배변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기 일체형 스마트 비데'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노화학 분석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으며 이를 코웨이의 '아이오케어(IoCare)'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탄생한 '인텔리케어 카림 비데'도 내놓았다.



코웨이 모델들이 8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9 CES'에서 처음 선보이는 '에어 시물레이션 시스템' 및 '인테리어 스마트 공기청정기'를 소개하고 있다. /코웨이

특히 코웨이는 CES에서 자사 비데 기술력의 핵심인 'i-wave 수류 시스템'을 참관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특별 디스플레이를 함께 전시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파크클라우드, '아이봇' 공개

파크클라우드는 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19'에 참가해 미래형 주차 신기술을 공개했다.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차 솔루션 '아이봇'은 차량 번호판 인식 기능과 클라우드 기반 머신러닝 기술을 탑재한 장치로, 차량 번호를 인식해 차종이나 차량에 맞는 주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파크클라우드



## SK이노, 배터리·소재사업 힘 싣는다

### 김준 총괄사장 업계 최초 참석 전자·글로벌 기업 부스 방문 배터리·소재 관계자들과 회의도

국내 에너지·화학업계는 물론 배터리 업계 최초로 CES에 참석한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이 현지에서 광폭 행보를 보이며 회사 미래 성장 동력인 배터리·소재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9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김준 사장은 'CES 2019' 개막 첫 날 8일 오전(현지시간)부터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노스홀에 위치한 SK그룹 공동 부스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배터리·소재사업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 잠재 고객사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부스를 방문해 기술 트렌드를 둘러보고 주요 완성차 및 자율주행 업체 등과 비즈니스 미팅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소재사업 잠재 고객사라 할 수 있는 전자회사의 부스를 방문해 혁신 트렌드를 직접 확인했다. 특히 이번 CES에서 풀러블 등 플렉서블 디바이스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들 제품을 유심히 지켜 봤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플렉서블 디바



8일(현지시간) 김준 사장이 SK그룹 부스에서 전시된 배터리 모듈을 살펴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이스의 핵심 소재인 FCW(플렉서블 커버 윈도)를 이번 CES에서 처음으로 공개, 이에 대한 국내외 고객사들의 문의가 이어졌다고 SK측은 설명했다.

한편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및 LiBS(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 FCW를 주력 제품으로 내세운 SK이노베이션의 부스가 현재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고 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배터리·소재사업 기술력 및 차별적 경쟁력과 향후 계획에 대한 관람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소재 등 비정규 사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

해 가고 있다. 최초 CES 참가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LiBS, FCW 등 미래 먹거리를 공개한 만큼 전통적 장치산업에서 미래 기술을 탑재한 첨단 회사로의 변화 속도도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김준 사장은 "이동수단을 뛰어넘은 자동차의 미래 모습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은 핵심 소재인 배터리·LiBS·FCW를 미래 주력 사업으로 하는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다"며 "SK이노베이션은 고객 가치 창출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함께 이들 배터리·소재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제57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9년 2월 20일~3월 14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9년 2월 23일~3월 16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 옵션) : ~~300,000~~ → 130,000원  
3월3일(일), 3월10일(일), 3월12일(화)

강사: 김대영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